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1년 9월 뉴스레터 vol. 46
한겨레두레협동조합

24%의 기적

채우고 비우고

장례후기

알쓸신장

채비가 만난 사람들

숫자로 보는 채비

협동조합은 운동인가 사업인가

공평한 죽음, 공평한 애도

“함께 하면 슬픔의 무게도 줄어듭니다”

장례비용 얼마나 들까 - 장지(葬地), 화장 편

길에는 언제나 기적이 숨어 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협동조합은 운동인가 사업인가



한국의 협동조합 뿌리인 '두레문화' (출처: 문화재청)

협동조합은 운동인가 사업인가. 나는 10년 넘게 협동조합에서 일하면서 아직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질서를 바꾸려는 의도를 갖기에 운동의 성격을 지니지만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사업이다. 운동과 사업은 병립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고, 그러라고 본다. 그런데 현실은?

돈도 벌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말처럼 쉬운 과제는 아닌 것 같다. 내 경우에 어느 한쪽을 말하라면 점점 사업 쪽으로 추가 기운다. 모든 운동은 정치적 성격을 띠지만 사업은 엄연한 경제영역 안에 있다.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원인가 활동가인가, '열정페이'는 정당한가, 비전 없는 헌신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의지와 신념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내 고민은 깊어만 간다.

마이클 왈저의 저서 <운동은 이렇게>는 명백히 '정치운동'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지만 나의 고민에도 빛나는 영감을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변화를 꿈꾸는 이들에게 필요한 책임 것은 분명하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옆이나 뒤를 돌아봐야 한다. 거기 어딘가에는 반드시 '오래된 미래'가 있기 마련이다. 하늘 아래 새것은 없고 인류사에 특별한 진보는 없었다고 하니까.

이 책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진보적 정치 이론가 마이클 왈저가 넓은 의미의 '시민운동가'를 위해, 이슈 정의에서부터 지지 동원과 연합 형성, 조직 운영과 모금 방법, 리더십의 역할, 파벌 문제의 해법 등 효과적인 사회운동을 펼치는데 필수적인 노하우, 25가지 제안을 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운동에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학생들의 모임에서부터 선거운동, 노동운동에 이르기까지 흔히 우리가 '운동'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정치적 행동들이 포함된다.

<운동은 이렇게>는 미국에서 1960년대를 격렬하게 관통했던 ‘운동의 시대’가, 케네디의 죽음, 베트남 전쟁, 1968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 미국의 캄보디아 침공 등 역사적인 사건을 거치면서 급격히 퇴조기로 진입했던, 그 결과 운동은 급진화 되고 운동 내 분열이 심각해져 화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시점에 쓰였다. 그는 1960년대 민권운동과 반전운동에 관여했는데, 이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그는 사회운동이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상황에서도 운동의 활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함께 민주주의에서 운동과 정치가 갖는 의미에 대해 사려 깊고 실천적인 이해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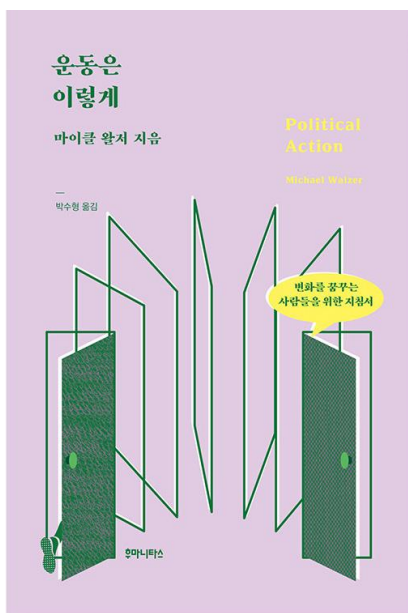
1971년 발간된 이 책이 2019년 재출간되어 활저의 표현대로 ‘제2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로스앤젤리스에 있는 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요청 때문이었다. 이들은 교내 동아리 학생들로 기후위기에 큰 관심을 가졌고 이런저런 활동을 구상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담당 교사이자 활저의 제자였던 미키 모건은 이 책의 일부를 학생들에게 복사해 나눠주었고, 학생들은 이 글을 읽고 이렇게 말했다.

“왜 이런 책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 책의 백미는 활동가들이 겪게 되고 빠지기 쉬운 문제들을 다루는 부분이다. 활동가가 갖기 쉬운 지적 오만과 낭만적 모험주의, 중산층 지식인과 급진파 청년들의 반정치적 태도, 지루함, 좌절감, 경제적 궁핍, 미디어의 유혹, 내부 갈등, 분파주의, 상층에서 여성들이 소외되는 문제 등을 이야기할 때, 과거 활동가였거나 현재 활동가라면 무릎을 칠지 모른다.

활저는, 활동가들은 늘 이런 문제들과 부딪혀야 하며, 운동이 수반하는 정치활동은 늘 고되고 자주 실패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작은 승리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시민활동가들이 소비되지 않고, 그 안에서 리더가 만들어져야 하며, 지지치 않도록 지원받아야 하고, 그만 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마치 따뜻한 응원처럼 들린다.

협동조합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공평한 죽음, 공평한 애도



가족이나 지인의 장례를 치르고 참석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장례를 잘 치러 충실한 애도 시간을 보낸다면 위로도 받고, 나아가 살아가는데 새로운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우리 조합은 ‘채비장례’로 깊은 애도와 위로가 있는 충실한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좋은 채비장례를 하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안마사로 일하는 시각장애인 김 원장에게 있어,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지인의 장례에 참석하는 일은 참 수고롭고 어려운 과정이다. 부고로 온 문자 메시지를 음성으로 들은 후에 활동지원사와 지인들과 만날 시간을 맞추어야 한다. 이동에 불편함이 많아 혼자서 훌쩍 장례식장에 다녀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김 원장은 지인들과 시내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만날 약속을 정하고, 시각장애인 복지콜택시에 전화를 건다. 그날은 운이 좋게 바로 콜이 잡혔다. 복지콜은 턱없이 숫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콜을 잡는 것이 어렵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중소장례식장은 주출입문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유도블럭이 없다. 지팡이가 있어도 길을 찾기 힘들다. 결국 동행한 활동지원사 없으면 비시각장애인 지인이나 직원에게 부탁할 수 밖에 없다. 사정은 건물 안이 더 열악하다. 아무리 단순한 장소라도 시각장애인에게는 미로와 같다.

김 원장은 더듬더듬 지인의 빈소를 찾아 들어갔다.

‘빈소가 어느 방향입니까?’라고 김원장이 묻자, 누군가 손을 잡아 방향을 잡아 준 듯하였다. 김원장은 누군가 쥐어 준 꽃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서 어정쩡한 자세로 헌화하고 반배를 하였다.

아뿔싸, 조금 뒤로 물러섰지만 거리가 가까웠는지 김 원장님의 머리가 헌화단에 쿵하고 부딪혔다.

아프기도 했지만 순간 당황스러웠다. 누군가 다급하게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어봐서 괜찮다고 급히 대답했지만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음에 뭔가 울컥 하는 게 올라왔다. 유족의 인도를 받아 식사 자리에 앉았다. 김원장님은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꼭 쥐었다. 거기에는 김 원장님이 신고 온 신발이 들었다. 바쁜 접객도우미는 친절하 목소리로 식탁을 차리고 부리나케 가버렸는데, 밥과 국을 겨우 더듬어 찾아서 편안하지 않은 식사를 마쳤다. 일어날 때 상주와 인사하고 싶었지만 방향을 알 수 없었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자니 번거롭게 하는 것 같아 서둘러 비닐 봉지에서 신발을 꺼내 신고 장례식장을 나왔다.

시각장애인의 불편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시각장애인에게 애경사는 특히 중요하다. 친목과 연대가 육체의 불편함을 견디게 해주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생애주기를 수행하는 일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서투름에 우울해진다.

우리 조합은 화우공익재단의 지원을 받아 시각장애인 장례문화인식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무국 직원들이 일상의 업무를 하면서 연구를 병행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도 작은 힘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간 우리 조합이 올바른 장례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애써왔다. 그 길에 장애인을 위한 장례문화개선이라는 이정표를 새롭게 새우고 있다.

이 연구가 잘 마무리되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례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장례현장 종사자들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최소한 우리조합원들만큼은 어떤 장례현장에서든 장애인을 눈여겨보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유형별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공부를 먼저 해야 한다.

죽음 뿐 아니라, 죽음의 과정도 누구에게나 공평한 그 날을 위해..✽

전승욱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비플래너

“함께 하면 슬픔의 무게도 줄어듭니다”



홍시를 좋아하는 어머니는 제사상에 홍시를 놓을 수 없는, 여름 끝자락이 바짓가랑이에 걸려 뽀얀 먼지구름 이는 입추와 처서 사이에 먼 나라로 가셨습니다.

30여 년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자리보전까지의 긴 투병생활에 고생이 많으셔서 외려 이제 굶었던 팔 다리 쪽쪽 펴고 영정사진에 잠시 놀다 간 나비처럼 훨훨 날아 가셨으리라 기쁘게 마음 먹으려 합니다.

차분하게 그리고 맥가이버처럼 다양한 능력으로 어머니의 장례를 이끌어 주신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장례지도사 김윤식 부장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영의 아버지와 합장을 위하여 산역을 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래전 아버지도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독수리 5형제자매는 매우 흡족하였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합원인 제가 대신 인사를 남깁니다.

함께 하면 슬픔의 무게도 줄어든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신 있게, 틈나는 대로 조합원 배가에 노력하겠습니다. ✨

이미경 | 조합원

어머니

이미경

폴숲에 버려진
깨진 향아리
여름내 장구벌레
바글대더니

쪽빛 하늘
구름 한 조각
단풍잎
은행잎 몇 개
들어앉은
가을

장례비용 얼마나 들까 - 3.장지(葬地), 화장 편



서울추모공원 로전실

2020년 우리나라의 화장율은 전국 평균 90%를 넘어섰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도시의 경우 95%를 넘어선다. 이처럼 우리 국민 대부분이 화장(火葬)을 선택한다. 화장은 화장 이후에 유해를 봉안하거나 매장해야 한다. 2차 장지가 필수적이다. 화장장 비용과 2차 장지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화장 비용

화장비용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복지 성격이 강하다. 고인 1인을 화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33만원 정도인데 관내 주민의 경우에는 5~15만원을 받는다. 고인이 주소지가 관내 이외의 지역이라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화장장(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이용 비용이 12만원인데 비해 성남이나 인천에서 화장한다면 100만원을 내야 한다. 화장장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가 화장장료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부천시의 경우 타 지역에서 화장하더라도 화장비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관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화장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설 봉안당과 자연장지

화장 후에 유해를 모시는 봉안당과 자연장지 역시 지자체에서 공설로 운영할 경우 지역민이 적은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화장장을 운영하지 않는 안산시, 양주시, 광명시 등은 공설 봉안당과 자연장지를 운영하고 있다. 예전에는 공설이 사설에 비해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사설과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사설은 봉안당이나 수목장의 위치나 크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지만, 공설의 경우 순서대로 안치하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서울시의 공설 자연장(수목장, 잔디장)은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지만 봉안당은 이미 만장(滿葬) 상태라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만 안치할 수 있다.

사설 봉안당과 자연장지

사설 봉안당은 서울시 공설 봉안당이 만장될 때쯤 서울 근교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금은 서울 외곽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사설 봉안당은 선호하는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다. 흔히 아파트에서 ‘로열층’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듯 봉안당 눈높이의 위치를 ‘로열단’이라 부른다. 당연히 가격도 비싸다. 아랫단이나 윗단에 비해 3배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서울 근교 봉안당의 로열단 가격은 일반실 기준으로 600~800만원 정도이다.

수목장이 유행하면서 자연장지가 많이 생겨났다.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산이나 공원에 너른 간격으로 심어진 나무에 유해를 안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은 공원묘지처럼 작은 나무를 줄 세워 식재한 후 분양한다. 공원묘지에 봉분 대신 나무가 있다고 보면 된다.. 공동목, 개인목, 부부목, 가족목 등 다양한 크기의 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성인 키높이의 가족목은 1천만원이 넘는다.

이러한 사설 봉안당이나 자연장지의 경우 보통 20~40% 정도의 리베이트가 발생한다. 1천만원짜리 봉안당을 소개할 경우 400만원 정도의 리베이트가 발생하는데 이를 장지소개업체와 장례지도사가 3대 7 정도로 나눈다. 물론 우리 조합은 리베이트를 전액 할인하거나 ‘페이백’ 해 조합원에게 돌려준다.

산골(散骨)과 해양장

산골은 유골을 산이나 강에 뿌리는 장법이다. 산골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명확히 말하면 불법은 아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산골에 관한 조항이나 규정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뿌려도 되는 것은 아니다. 국유지나 타인의 사유지에 허락 없이 뿌리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화장장에는 산골을 위한 ‘유택동산’이라는 산골장이 있다. 이곳이나 사유지에 산골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근래에는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도 유행하고 있다. 인천, 강릉, 부산 등에서 허가 받은 업체가 성업하고 있다. 어로와 항로를 피해 해안가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 부표를 설치하여 그곳에 유골을 뿌린다. 일본의 경우 해양장이 일반화돼 있다. 우리나라는 유족이 원할 경우 간단한 제례의식을 진행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많은 개선이 필요한데, 비용은 50만원 정도이다.

장법을 결정하고 장지를 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조언이다. 보통의 장례업자나 장례지도사는 알지 못하는 유족에게는 더 많은 리베이트와 수수료를 주는 곳으로 안내하기 쉽다. 앞서 말했듯 우리 조합은 사전 상담을 통해 바가지 쓰지 않고 적절한 장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박태호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포계 실장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 장례 전 과정에서 장례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적으려고 했지만 지면의 한계로 언급하지 못한 내용이 많습니다.
장례비용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1588-9517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알쓸신장’은 ‘알아두면 쓸데 있고 새로운 장례 이야기’입니다.
장례 상식 및 다채로운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길에는 언제나 기적이 숨어 있다

다치 대표, 이인권 이인택 조합원



이인권 대표(왼쪽)과 이인택 대표

나는 이인권 대표(51)를 우연찮게 길에서 만났다. 평소 각별하게 지냈던 선배를 저세상으로 떠나보내고 49일이 지난 날이었다. 햇볕 뽕뽕한 날이었는데 울창한 숲으로 들어서니 금세 눈이 침침해졌다. 선배는 어디 계실까, 동행(최동근 조합원)과 함께 비지땀을 흘리며 한참 찾아 헤맸다.

선배는 비탈진 언덕 떡갈나무 아래 고이 잠들어 있었다. 나무에 매단 현판에 ‘한국 건축의 양심. 채나눔으로 저항한 건축가 ○○○ 여기 잠들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고인이 평소 좋아하던 담배도 한 갑 놓여 있었다. 지난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고 그리움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다.

참배를 마친 후 인근 국립광릉수목원을 둘러 한 시간쯤 포행(歩行)을 하고 포천 초입으로 향했다. 그곳 창고에서 이인권 조합원을 처음 만났다 내가 도착한 곳은 ‘DARCH(다치)’의 한국총판이자 전시장이었다. 법인명은 오버랜딩코리아로 전국에 12개 대리점을 두었다. 이 대표는 IT기업을 다니다가 먼저 판을 깬 동생(이인택)과 의기투합했다. 동생이 총판 대표, 형이 포천지사장을 맡고 있다.

”3년 전 동생이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다치’를 알게 되었어요. ‘이거다’, 라는 감이 왔고 바로 본사에 메일을 보냈지요. 여러 차례 통화를 거듭하면서 설득했고 결국, 한국총판 계약을 따냈지요. 이 어려운 시국에 이게 될까 싶었는데, 다행히 캠핑인구 500만 시대를 맞아 다치의 매력이 알려지면서 매출이 크게 늘고 있어요.”

다치(1991년 설립)의 본사 찰스파슨스 그룹(1915년 설립)은 호주 107년 전통의 섬유 전문 그룹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에 20개 지사를 보유한 남반구 최대 규모의 직물 공급 업체이다. 이 그룹의 아웃도어 브랜드 다치는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캠퍼들에게 인정 받는 브랜드이다.. 차량용 어닝 외에도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3년 전, 처음으로 다치 제품을 소개하면서 소비자의 반응이 무척 궁금했어요. 다치는 호주의 대자연에 최적화된 제품이라 산악이 많은 우리 현실에 맞을까 걱정도 했지요. 하지만 우려와 달리 차량용 어닝 시리즈는 독보적인 퀄리티와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캠핑의 신세계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스웨그(Swag)’ 텐트도 캠핑 문화를 바꿀 만한 핫 아이템입니다.”

스웨그는 서부개척시대에 말이나 마차 뒤에 둘둘 말은 담요를 뜻하는데 밤이 되면 잠자리를 책임지는 간편한 보따리에서 유래했다. 스웨그는 무릎 높이쯤 오는 키 낮은 텐트이다. 바닥 매트까지 포함되어 바로 들어가 누울 수 있고 손쉽게 펴고 접을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1~2인용 텐트가 경량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스웨그는 튼튼하나 재질에 주안점을 두었다.

포천 전시장에는 오토캠퍼들에게 인기 있는 "다치"270, 180 등 다양한 차량용 어닝과 중.대형 텐트, 1~2인용 소형 텐트(스웨그), 에어-볼루션 텐트가 전시돼 있다. 소싯적에 캠핑 좀 다녔던 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텐트를 보면서 훌쩍 반했다. 전시된 제품을 일일이 살펴보고,, 만져보고, 누워보면서 가슴이 뛰었다. 야생의 본능이 깨어난 것일까.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일에 성큼 발을 내디딘 이인권 이인택 형제의 야심찬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길에는 언제나 기적이 숨어 있다.✿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 오버랜딩코리아 <http://overlanding.co.kr>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거친봉이길 58-17
- 문의: 010-6322-7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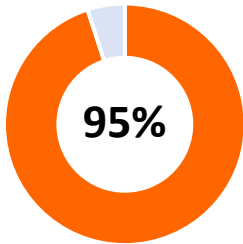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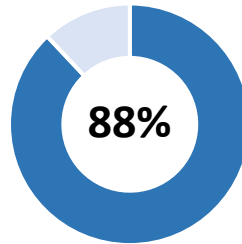
좋은 죽음(Well Dying)이란 1

‘죽기 전에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이다’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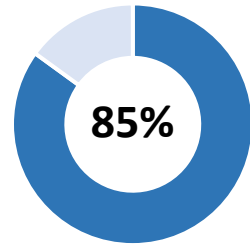
좋은 죽음이란 (동의률)



죽기 전에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죽음



죽을 때 두려움
없는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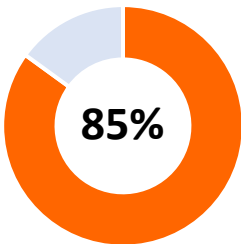
주변 사람들이 함께
준비하는 죽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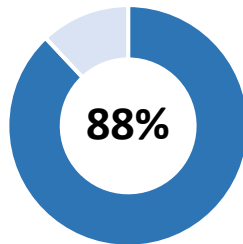
좋은 죽음(Well Dying)이란 2

‘나는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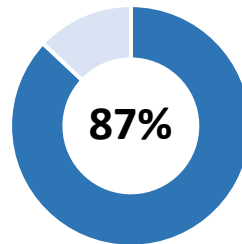
좋은 죽음이란 (동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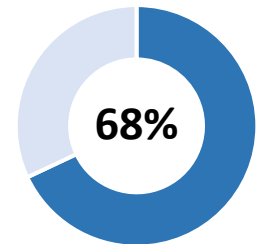
임종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죽음



가족과 좋은 관계로
끝맺는 죽음



간병비나 병원비로
가족을 고생시키지
않는 죽음



사후 주변인에게
오래 기억되는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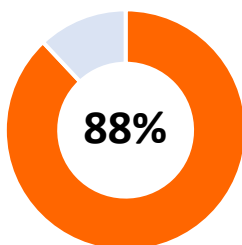
*자료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죽음의 질 재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2018.12(전국 만 40~79세 남녀 1500명)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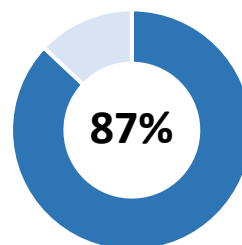
좋은 죽음(Well Dying)이란 3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목숨만을 연명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 87%

원하는 죽음 (동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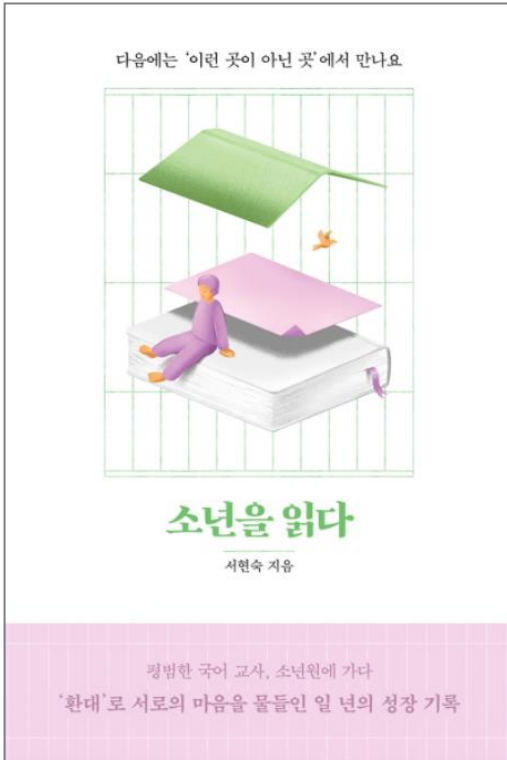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이 온다면
나는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죽고 싶다



나는 중병이나 불치병에 걸리더라도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는 않다

*자료출처: 트렌드모니터, ‘죽음 및 상조 서비스 관련 인식조사’, 2019.05.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길



소년을 읽다

서현숙 | 사계절

이 책은 서현숙 국어선생님이 소년원 아이들과 함께 한 독서모임을 기록한 것이다.

아이들은 소년원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환대’를 배우며 자신의 마음은 물론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도 알아간다. 담담하게 기록한 이야기지만 자주 마음을 울컥거리게 만든다.

“집에 가면 연락해도 돼요?”

“제가 이전과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겁나요. 여기 들어오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까봐.”

기록된 대개의 아이들 이야기가 너무 아프다. 소년원에서 의 시간동안 아이들은 성장하지만 그곳은 시간이 멈춘 진공의 순간이다.

아이들은 세상과 단절되어 한 공간에서 자신의 과오와 마주하며 뼈아픈 시간을 보낸다. 희망을 말하며 동시에 두려움을 이야기한다.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친구들과 세상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처지를 슬퍼한다. 삶을 섬세하게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있다면 좀더 수월하게 성장할 수 있고 덜 아프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일까? 이 책을 읽는동안 생각해본다.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만, 타인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시간을 살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고정관념은 사고의 범주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저자는 자신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인상에 고정관념이 있었음을 시인한다. 나 또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대상화 하고 있었다.

저마다의 사연을 추적하며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희망까지 거세해서는 안됐음에도, 책을 읽는 동안 기도했다. 세상으로 나간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

우은주 |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사무국장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채비플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비플랜은 가족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채비장례의 실제 내용을 준비합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한 채비플랜 강의는, 첫번째 시간에 채비장례에 대한 설명과 준비사항을, 두번째 시간에는 추모식을 준비하기 위해 추모영상 준비하는 방법과 생애사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2강은 영정사진, 추도사, 부고, 유품 정리, 메모리얼포스트에 대한 설명과 방법을 알고 가상 추도식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합니다.

[연합회] '송악동네사람들'과 업무협약



지난 8월 19일,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송악동네사람들은 마을주민들 스스로의 힘과 창조성으로 마을안의 문화예술, 여행, 교육, 장터와 축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입니다(뉴스레터 45호 '채비가 만난 사람들' 소개).

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송악동네사람들은 앞으로 수의 공동판매, 교육지원, 마을돌봄, 공동체장례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산 생선의 맛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갈치선물세트 갈치 450g x 3팩 원산지: 국내산(제주) 판매가: 90,000원 	반건조서대세트 반건조서대(300g/2~3마) x5팩 원산지: 국내산(남해) 판매가: 50,000원 	반건조민어세트 반건조민어300g x 5팩 원산지: 국내산(서남해) 판매가: 45,000원 
고등어세트 고등어150g x 10팩 원산지: 국내산(남해) 판매가: 30,000원 	갈치세트 갈치300g x 4팩 원산지: 국내산(제주) 판매가: 70,000원 	반건조민어조기세트 반건조민어300g x 3팩, 조기(400g/5마) x 2팩 원산지: 국내산(서남해) 판매가: 45,000원 

- * 전 상품 무료배송
- * 개별주문시 구성품 변경 가능
- * 명절, 상시 주문 환영

* 받으시는 즉시 냉동보관하세요

주문

(☎) 031-769-1980, 010-3215-4407 (이정임 대표)
 입금계좌: 농협 351-1110-7080-93 (예금주: (주)우리바다살림)

* (주)우리바다살림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 협력업체입니다.

소중한 지인에게 하나둘키트를 선물해주세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올해 12년 차에 접어들면서 조합원 부흥운동 ‘하나둘하나둘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건강한 장례문화가 정착하려면 더 많은 조합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상업적 장례를 상호부조의 장례로 확실하게 바꿀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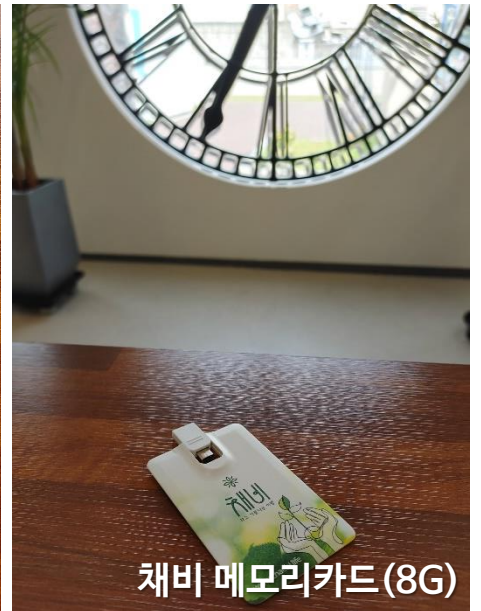
하나둘키트는 한겨레두레에 대한 소개와 장례에 대한 준비를 담았습니다.

조합원이시라면, 우리 조합을 소개할 만한 지인에게 전달해주세요

비조합원이시라면, 저희 조합을 알기 위해 신청해주세요



하나둘 키트 구성품



채비 메모리카드 (8G)



하나둘키트 언박싱 소개영상
보러가기

하나둘키트 신청 CLICK

#작은장례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첫 번째 장례문화 캠페인으로
 ‘나도 #작은장례를 지지합니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례문화의 시작에 우리 조합원부터 함께 동참해 주세요.

지지서명하기

2021. 8월

성한용 조합원 모친상
이미경 조합원 모친상
추병호 조합원 부친상

김일오 조합원 빙모상
김홍석 조합원 부친상

안동섭 조합원 모친상
정재권 조합원 사돈상

2021. 7월

김경환 조합원 지인상
최정서 조합원 모친상
최정우 조합원 누나상
한승동 조합원 모친상

이영미 조합원 시부상
정경진 조합원 모친상
오헨리 조합원 배우자상

이혜순 조합원 시부상
정승균 조합원 빙부상
박영철 조합원 모친상

2021. 6월

신종훈 조합원 부친상
박용규 조합원 본인상
박상훈 조합원 조모상
이유진 조합원 부친상
정형원 조합원 부친상

윤성주 조합원 모친상
이수연 조합원 시부상
김태형 조합원 빙부상
박종아 조합원 모친상

박승흡 조합원 빙부상
이형숙 조합원 시모상
이현우 조합원 빙모상
방형석 조합원 부친상

2021. 5월

노은실 조합원 시부상
이승환 조합원 부친상
임현택 조합원 부친상
홍선용 조합원 형수상
김소영 조합원 시숙상

이명진 조합원 본인상
박규섭 조합원 빙부상
노환춘 조합원 부친상
정 훈 조합원 빙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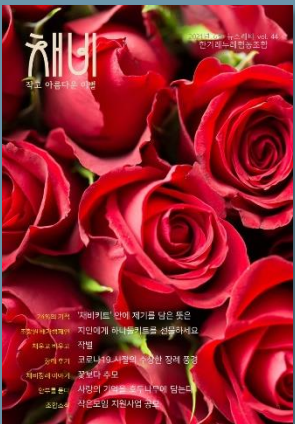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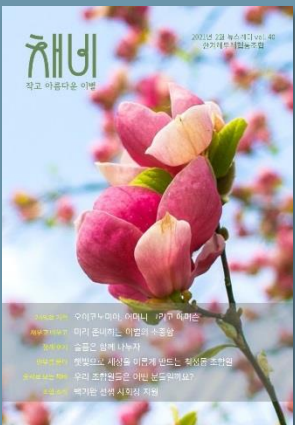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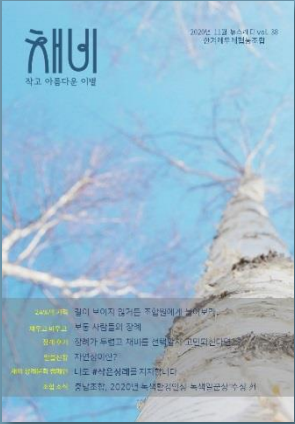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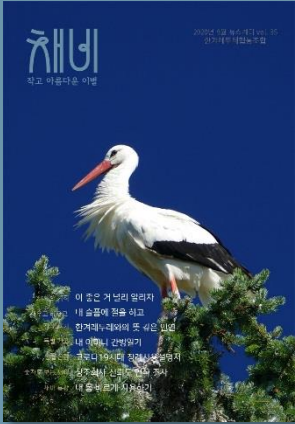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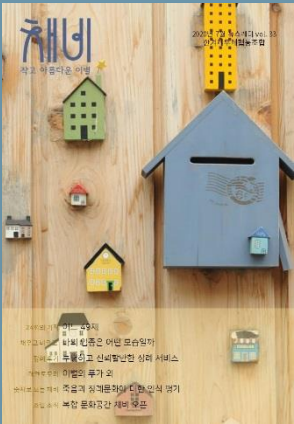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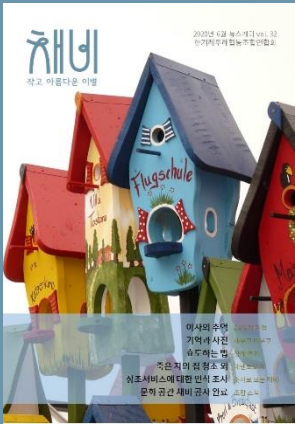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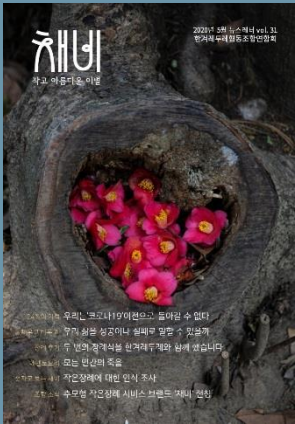
문중호 조합원 빙모상
김정찬 조합원 부친상
여상재 조합원 부친상
조현일 조합원 부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